

에이텐, 원격 공유 접속 멀티 KVM over IP 스위치 2종 출시



멀티채널 원격 접속 대응
중앙 집중식 관리
솔루션

원격 공유 접속 규모에 따라
32 포트 or 64 포트 中
택 1

VGA 또는
HDMI 로컬 콘솔 출력으로
활용성 높아

정보 기술, Pro A/V, 통신 및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에이텐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 서버룸 등을 모니터링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로컬 콘솔 및 원격 IP 접속을 제공하는 KVM over IP 스위치 2종 KN8032VB와 KN8064VB 모델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문적인 제어 시스템에 필요한 환경을 타깃으로 후면에 제공되는 이더넷 포트 숫자에 따라 최대 32대 또는 최대 64대의 서버를 연결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 KVM over IP 스위치다. KN8032VB는 최대 32대까지, KN8064VB는 최대 64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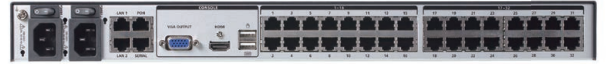
예를 들면 관제실, 데이터센터, 서버룸, 생산 라인 등

같이 대량의 컴퓨터가 가동되는 환경에 설치하면 단 하나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만으로 다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특히, KN 시리즈는 내장된 FIPS 140-2 인증 Open SSL 암호화 모듈을 사용해 최대 1920×1200 FHD 비디오 해상도, 2배 빠른 속도의 버추얼 미디어 전송, 레벨 1 보안 표준을 갖춘 FIPS 140-2 규격도 충족한다. 로컬 콘솔 인터페이스는 VGA/HDMI를 제공한다. 구형 장비가 VGA/DVI로 구성된 것 대비 최신 장비 호환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진 구성이다. 에이텐 관계자는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DVI 대신 점점 더 선호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HDMI로 변경, 적용하여 최신 장비 호환성이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64-포트 멀티-인터페이스 Cat 5 KVM over IP 스위치 KN8064VB



32-포트 멀티-인터페이스 Cat 5 KVM over IP 스위치 KN8032VB

이 외에도 KVM over IP 스위치 전문기업 ATEN을 향한 기대를 충족하고자 기존 KVM 스위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수정하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니즈는 반영했으며, 마지막으로 원격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로 전개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의 보안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8개 핵심 항목을 중점으로 상품성을 강조했다.

1. **버추얼 미디어 지원** : 원격에서 파일 전송 및 다운로드 기능 활성화
2. **포트 공유 모드 지원** : 여러 사용자가 서버에 동시 접속 가능
3. **전원 및 LAN 이중화** : 2개 전원 AC, 2개 LAN으로 통신 및 전력 공급 보장
4. **Mouse Dynasync 지원** : 로컬과 원격 마우스 움직임을 자동으로 동기화해 마우스 포인터 정렬
5. **최대 1920×1200의 Full HD 해상도** : 우수한 비디오 품질 제공
6. **Out of band 관리** : 다수 서버를 KVM over IP 스위치로 통합 라이브 서비스 도중 문제 발생 시 별도 네트워크 통한 접속 및 관리 가능한 OOB (out of band, 대역 외) 관리 솔루션을 제공
7. **블레이드 서버 지원** : KVM 포트에 블레이드 서버 연동하여 관리
8. **Panel Array Mode** : 다수 비디오 소스를 한 화면에서 최대 8x8 멀티뷰 레이아웃으로 모니터링

에이텐코리아는 신제품 원격 공유 접속 멀티 KVM over IP 스위치 2종 KN8032VB·KN8064VB 제품의 추천 운용 환경에 △ IDC 센터 △ 서버룸 △ 전산실 △ 클라우드 서버 △ 관제 환경 △ 데이터센터 △ 생산라인 등을 나열했다. 특히 다른 층, 건물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네트워크로 처리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에이텐코리아 마케팅팀 전성훈 팀장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서비스 환경에서는 관련 솔루션 또한 복잡해지고 고도화하고 까다로워지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제어와 운용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며, “KVM 기술력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ATEN이 또 한 번 KVM 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리드하는 흐름이며, 신제품 2종 KN8032VB·KN8064VB은 이러한 움직임의 첫 단추 성격이 될 제품이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소니코리아, 재구성 가능한 적재식 라이브 프로덕션 프로세서 스위처 MLS-X1

모듈형 타입의 제작 스위처 MLS-X1



MLS-X1은 모듈식 라이브 프로덕션 프로세서 및 스위처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솔루션과 결합하여 유연한 하이브리드 프로덕션을 구현할 수 있다.

모든 프로덕션 요구사항에 맞춰 완벽하게 구성 가능

모듈형 라이브 시스템인 MLS-X1은 다양한 라이브 프로덕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도로 재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세싱 성능과 확장성으로 창의적인 프로덕션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MLS-X1은 수십 년간 까다로운 라이브 작업을 거치며 다듬어진 소니 프로페셔널 스위처의 운용성, 안정성, 역량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확장된 단일 대형 스위처 새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프로덕션 요구사항에 따라 여러 개의 소형 프로세싱 유닛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 MLS-X1을 사용하면 멀티 프로그램, 멀티 포맷 프로덕션 등 대규모 이벤트를 수행 능력과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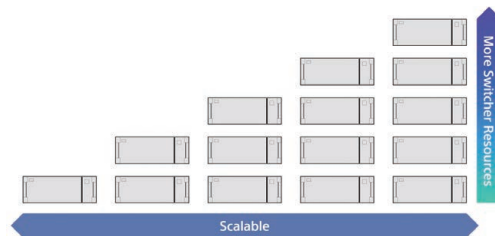
다이내믹. 간단. 유연. 빠른 속도.

소니의 네트워크 라이브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의 원활한 하이브리드 분산 프로덕션을 통해 유연한 고화질 라이브 콘텐츠 프로덕션을 지원한다. 지

리적으로 먼 위치 사이의 리소스 공유 덕분에 고화질 라이브 프로덕션이 가능해지며, 어디에서든 프로세싱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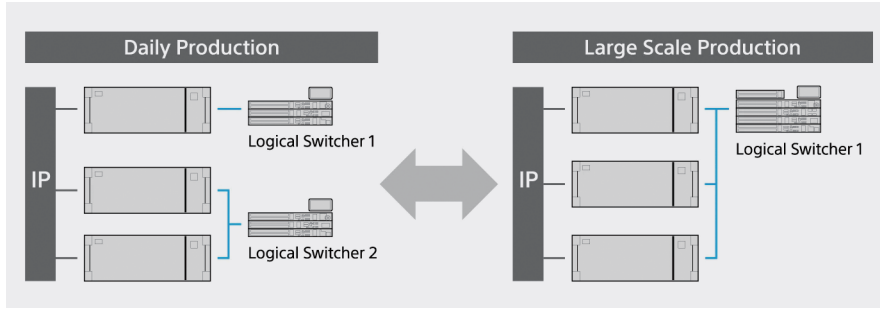
네트워크 라이브 솔루션에 포함된 요소 중 하나인 MLS-X1은 재구성 가능성과 성능으로 비즈니스를 보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OB 밴, 원격 프로덕션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지원한다.

새로운 적재식 컨셉



MLS-X1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일상적인 프로덕션에도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다. 각 MLS-X1 유닛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요구사항에 맞춰 물리적 구조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논리적 스위처는 일대다 MLS-X1 유닛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프로덕션에는 보통 사용되지 않는 과도한 용량이나 기능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라이브 프로덕션에 필수적인 이중화 시스템도 N+1 ~ N+N 같은 다양한 모드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논리적 배포 유연성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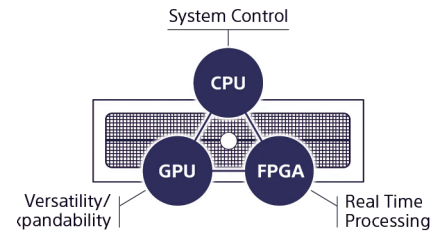


대규모 이벤트에서는 여러 MLS-X1 유닛을 다른 스튜디오에 할당된 다른 유닛에 연결하여 즉각적으로 시스템의 출력과 용량을 늘릴 수 있다. 하나의 MLS-X1 클러스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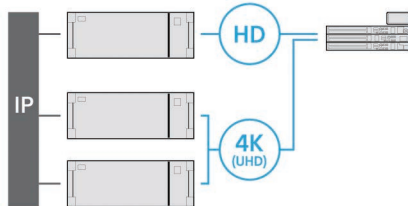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프로덕션에 동시에 사용되더라도 매우 규모가 큰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여러 스튜디오의 MLS-X1 유닛을 상호 연결할 수 있으며, 그 와중에 나머지 논리적 스위처는 평소와 같은 프로덕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싱

MLS-X1의 아키텍처는 스위처의 검증된 비디오 프로세싱 구조에 GPU 기반 효과와 그래픽 모듈을 더해 유연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가속 프로세싱은 4K/UHD 및 HDR 동영상의 실시간 프로세싱을 지원한다. 또한, 4K/HD 멀티 포맷 프로덕션을 지원하며, 기존의 포맷 컨버터 외에도 SDR-HDR 컨버전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HDR 포맷도 시스템 포맷으로 기본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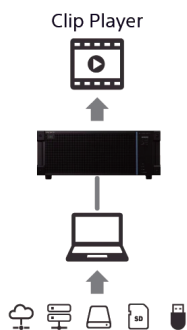


여러 프로그램 프로덕션이 가능하도록 향상된 생산성



소니만의 'Dual Simul' 기능과 적재식 구성을 사용하면 4K/UHD + HD 같은 여러 동시 프로덕션에서 프로덕션마다 필요한 프로세싱 유닛의 수를 할당하여 단일 패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MLS-X1은 보통 스포츠 라이브 프로덕션에 필요한 4K/UHD + HD 멀티 포맷 프로덕션이나 Host 피드 + Unilateral 피드 같은 여러 가지 동시 프로덕션을 처리할 수 있다. 소니만의 'Dual Simul'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의 패널에서 한 명의 인력이, 아니면 여러 패널에서 여러 명의 인력이 이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라이브 프로덕션에 중요한 추가 기능



MLS-X1에 내장된 클립 플레이어 덕분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나 클라우드에 있는 콘텐츠를 PC를 통해 시스템의 내부 SSD에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라이브 프로덕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4채널 HD/2채널 UHD를 지원하며 향후 확장을 계획할 수도 있다. 내장된 프레임 동기화 장치, 포맷 컨버터, HDR 컨버터가 필요한 외부 장치의 수를 줄여주므로 라이브용으로 매우 컴팩트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창의적인 기능으로는 3D 디지털 멀티 이펙트, 추가적인 스틸 로고 키, 멀티 뷰어를 제공한다.



지난 KOBA 2023의 소니코리아 부스에서 전시되었던 MLS-X1과 스위처 스탠드 컨트롤 패널 ICP-X7000

유원인포시스,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Pelican 트랜스코딩 플랫폼

Pelican 트랜스코딩 플랫폼, 에너지 친화적인 모듈 기반의 트랜스코더

Torque Video Systems가 개발한 Pelican 트랜스코딩 플랫폼은 미디어 트랜스코딩 분야에서 에너지와 공간, 전력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솔루션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OTT 트랜스코딩 워크플로우는 소프트웨어 인코더를 기반으로 한 상용 서버를 사용하므로, 수백 대의 서버로 구성된 트랜스코딩 팜을 가진 데이터 센터가 흔하다. 이런 데이터 센터에 Pelican을 도입하면, 랙 공간을 1/10로 줄이고, 운영 비용을 최대 95%까지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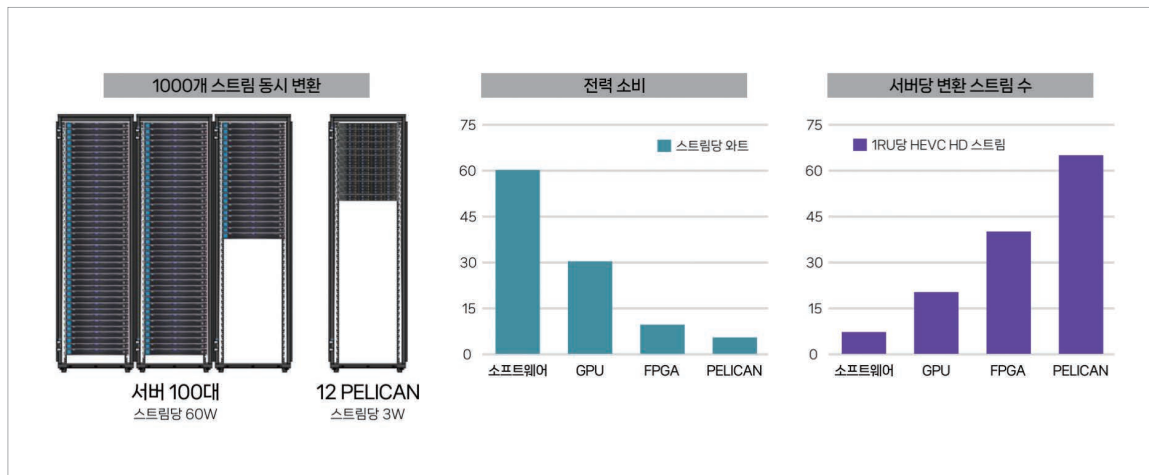


그림 1. 1,000개 스트림 동시 처리 시 비용 절감

VLSI(초고밀도 집적회로) 기반의 하드웨어 트랜스코딩 기술 적용

Pelican의 가장 특징적 기술력은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가속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H.264/AVC 및 H.265/HEVC 포맷을 8K 해상도까지 트랜스코딩하는데 있다. 2RU 크기의 Pelican은 최대 24개의 VLSI 모듈을 NVMe Slot에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시에 최대 192개의 Full HD 스트림을 변환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은 불과 500와트다. [그림 2]는 Pelican의 하드웨어 모듈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결합되어 동작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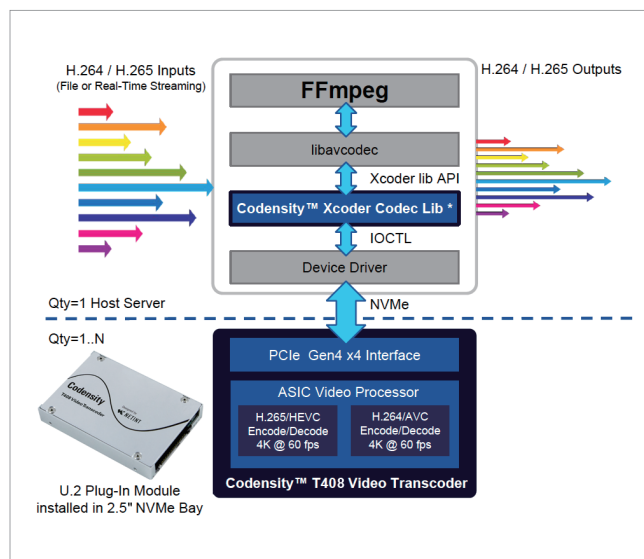


그림 2. Pelican 시스템의 개념도

웹 GUI를 통한 쉬운 구성

Pelican은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직관적인 웹 GUI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랜스코딩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다. 라이브 트랜스코딩 설정을 위해서는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입력소스와 출력 스트림(해당 출력의 IP, 인코딩 포맷, Bitrate 등)을 저장한 후 'Go'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사용자가 정의한 설정은 프리셋으로 저장하거나 복제하여 새로운 인스턴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인스턴스 그룹을 통한 관리 기능

트랜스코딩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지만 Pelican의 그룹 제어 기능을 사용하면, 각 인스턴스를 사용자가 정의한 그룹에 할당하여 그룹 내의 모든 트랜스코더를 일괄적으로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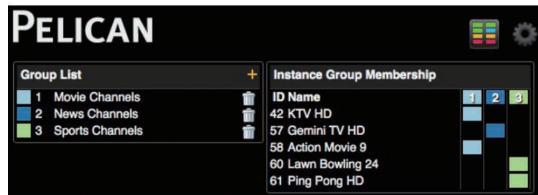


그림 4. Pelican 그룹 관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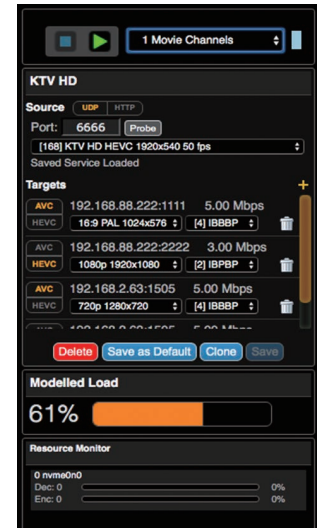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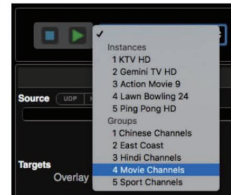


그림 3. Live Transcoding 설정

유연한 운영 모드와 작업 관리

Pelican은 IPTV와 OTT를 모두 지원하는 'Live to Live' 모드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File to File', 'Live to File'의 모드가 있다. 'File to File' 모드에서는 다양한 입력/출력 형식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콘텐츠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Watch Folder 기능을 통해 NFS나 CIFS

폴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설정된 포맷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FTP 혹은 간단한 웹 업로드를 통해서도 콘텐츠 전송이 가능하며, 각 파일 워크플로우는 세부적인 사용자 제어와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Live to File' 모드는 나중에 재생이나 아카이브를 위해 피드를 캡처하는 데 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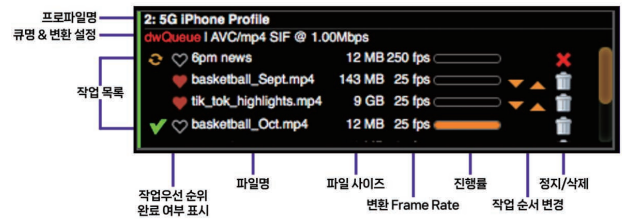


그림 5. Pelican의 트랜스코딩 작업 관리 GUI

Pelican 제품 라인업

Pelican은 동시 처리 작업 수에 따라 3가지 모델로 나뉜다. Pelican XS, Pelican-12, 그리고 Pelican-24 세 모델은 모두 직관적 HTML5 웹 GUI와 RESTful API를 제공한다.

미디어 트랜스코딩의 미래

진화하는 미디어 트랜스코딩 환경에서 Pelican은 VLSI 가속 하드웨어 트랜스코딩,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원활한 통합 기능을 활용해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6. Pelican의 세 가지 모델

제품 문의 : (주)유원인포시스 02-3775-2545 www.uwin.co.kr